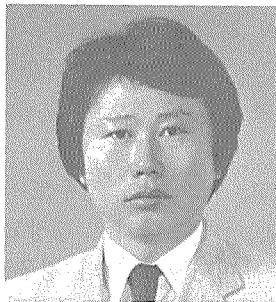


1. 개 요

'90년도 국내 전자공업 수급동향



신 영 조
본회 조사통계과장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88년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다 '89년부터 노사분규, 노동생산성을 능가한 임금인상, 원화의 절상 등으로 '89년에 이어 '90년도에도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0.7%, 3.9%로 극히 저조한 성장을 나타냈다. 특히 결프전으로 인한 구매력 감퇴로 세계 경기의 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생산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부진에 따른 국내업체의 내수기반강화로 내수는 6조원으로 전년대비 17.1%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임금인상으로 인한 구매력증진과 TV, 냉장고 등의 대형화와 기술개발에 의한 가격인하로 내수부문만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수입은 수출부진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소비재의 증가로 9.2%가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2배나 초과했다. 지난해에는 저해요인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1위 산업으로 면모를 유지하였으며 동구권과의 교역의 활발화와 원화의 절하, 노사의 안정화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조성되었다.

2. 생산동향

'90년도의 전자공업 생산은 21조 354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로 '89년 성장률과 비슷한 증가를 나타냈다.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시대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산업용기기의 생산이 4조 6,597억 원으로 13.9%가 증가하여 가장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표-1〉 부문별 생산실적

(단위 : 억원)

부 문 별	'89	'90	증감률(%)
산업용기기	40,912	46,597	13.9
가정용기기	66,660	72,645	5.6
전 자 부 품	82,471	91,112	10.4
계	190,044	210,354	10.7

부품은 반도체, 자기헤드, 음극선관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0.4%가 증가한 9조 1,112억원을 나타냈다.

가정용기기는 주요 수출주종품목의 수출부진으로 7조 2,645억원을 생산하여 5.6%성장으로 가장 낮은 성장을 나타냈다.

가. 산업용기기

'90년도의 산업용기기 생산은 4조 6,597억원으로 전년대비 13.9%가 증가하였으나 '89년 성장을 22.6%에 비해 저조한 성장을 나타냈으나 '90년도에 부문별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무선통신기기의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증가로 인한 Mobile Phone 등이 큰폭의 신장을 나타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의 경우 Note Book PC와 Lap Toppc의 개발이 늦어져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생산이 저조하여 9,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8%가 감소하였으나, 주변기기의 경우 컴퓨터의 보급확대로 주변기기의 수요가 큰폭으로 신장하여 전년대비 31.9%가 증가한 1조 2,600억원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생산이 산업용기기 총생산에 48.6%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기의 경우 보급의 한계와 수출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0%가 감소하였으나 Mobile Phone은 자동차증가로 인한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560억원을 나타냈다. 또한 사무자동화와 OA기기 보급확대로 FAX의 생산이 40만대로 전년대비 158%가 증가하여 '89년에 이어 계속 큰 폭의 신장을 나타냈다.

나. 가정용기기

가정용기기는 세계경기하락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90년도의 생산은 7조 2,645억원으로 전년대비 5.6%로 미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가정용기기 생산이 저조한 것은 국

내인건비 상승으로 저가품의 경우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또한 주요 수출주종품목의 수출부진이 생산증가둔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정용기기는 연중 하반기의 수출이 집중되는데 결프전으로 구매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수출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C-TV, VTR, MWO 등이 모두 수입규제에 묶이게 되었고 제3국의 저가공세가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VTR의 경우 수출·내수의 부진으로 '90년에 1조 1,000억원을 생산하여 '89년에 이어 '90년에도 마이너스 8.1% 성장하였다.

전자렌지도 유럽의 재고누적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4,860억원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28.6%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반면 C-TV의 경우 대형 고가품의 수출 및 내수증가로 1조 4,000억원으로 22.6%가 성장하였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도 국내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냉장고는 대형화 및 고급화 추세이며 세탁기의 경우도 저소음, 전자동으로 수출 및 내수가 고급화되고 있어 '90년도에 냉장고, 세탁기가 각각 7,400억원, 5,5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6%, 31.9%로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다.

다. 전자부품

'90년도의 전자부품 생산은 9조 1,112억원으로 전년대비 10.4%의 낮은 성장을 나타냈다. 수출주종품목인 전자렌지, 전화기, 컴퓨터, 오디오, VTR 등의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부품생산도 큰 폭의 신장은 하지 못했으며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영세한 중소부품업체의 극심한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전자부품 생산에 4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3조 6,000억원을 생산하여 수출과 비슷한 12.2%의 성장을 나타냈다.

Tape의 경우 홍콩, 대만 등의 저가공세에 밀

려 시장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7,900억원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7.7%의 성장에 머물렀다.

반면 CRT의 경우 점차 대형화 및 고급화 추세이며 동남아 및 해외 현지공장의 수출증가와 국내 C-TV 수출 및 내수증가로 '90년 CRT생산이 3,549만대로 전년대비 6.8%가 증가하였으나 CRT의 대형화 및 고급화로 인해 금액으로는 1조 1,670억원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16.2%가 증가하였다.

일반전자 부품은 일부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인건비 상승,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 완제품수출부진으로 인한 Local공급 부진 등으로 전년수준과 비슷한 성장을 나타냈다.

수출주종품목의 수입규제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으로 국내부품업계에서는 '90년도에 처음으로 부품업체 해외동반진출을 시도하여 완제품업체와 국제, 국내 4개 부품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현지 Local Content조합과 원자재규정 및 국내 인건비상승으로 국내 부품업체 해외동반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3. 수출동향

가. 산업용기기

우리나라 전자제품수출에 20.2%를 차지하는 산업용기기는 '90년도에 34억 8,000만弗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다. 산업기기 총수출 중 57%를 차지하는 컴퓨터 수출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Note Book PC와 Lap Top PC의 주요핵심부품의 해외의존심화와 대만의 저가공세에 밀려 컴퓨터 본체의 경우 '90년도에 6억 3,5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34.9%나 감소하였다. 전화기의 경우도 해외수요가 점차 소량다품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화기의 신제품 개발도 급격히 빨라져 기존의 중·저가의 전화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Cordless Telephone이 5,6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9%나 감소하였다.

〈표-2〉 부문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弗, %)

부 문	'89	'90	증감률(%)
전자공업계	16,562	17,215	3.9
산업용기기	3,491	3,481	△0.3
유선통신기기	1,178	1,148	△2.6
무선통신기기	430	589	36.9
전자응용기기	239	553	131.3
정보기기	2,173	2,106	△3.1
전자부품	7,270	8,204	12.8
반도체	3,571	4,073	14.0
전자관	679	826	21.6
수용부품	275	282	2.4
기능부품	1,717	1,912	11.2
기구부품	288	297	2.8
가정용기기	5,800	5,529	△4.7
전자제품	4,392	4,388	△0.1
음향기기	1,776	1,737	△2.2
영상기기	2,594	2,637	1.7
전기제품	1,408	1,141	△18.9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프린터, 터미널, 칼라모니터 등의 수출호조로 '90년도에 13억 3,0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7%로 큰 신장을 나타냈다.

또한 88년부터 급부상한 Fax는 '89년에 이어 '90년에도 OEM 수출증가로 9,4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463%가 증가하여 산업용기기의 수출유망상품으로 급부상하였다.

나. 가정용기기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는 가정용기기는 원화절상, 선진국의 수입규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악재가 겹쳐 '90년도에 55억 2,9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4.2% 성장하였다.

특히 일본기업의 동남아 진출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 현지 공장의 수출경쟁력이 깊은 노동력에 의해 우리제품 보다 10%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어 우리제품에 상당한 수출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정기기 제품의 수출주종

상품의 하나인 VTR의 경우 지난 '85년부터 '88년까지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연평균 63%, 86%의 고성장을 보여왔으나 '89년과 '90년사이 각각 6.3%와 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시장의 경기하락과 더불어 걸프전으로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주종품인 C-TV, VTR, MWO 등이 미국과 EC에 수입규제하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동구권의 시장개방과 88올림픽으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산제품의 성가제고로 그나마 4.2%를 성장할 수 있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C-TV의 경우 로타리형 토조 및 대형화, 평면4각 등 제품의 고급화로 13억 4,800만弗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5.4%가 증가하였으며 오디오는 17억 3,7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다. 이는 중·자가의 Radio가 전년대비 26%가 감소한 3,700만Fr을 수출하였고 Tape Deck는 31.3%가 감소한 4,500만Fr을 수출하였다. 오디오기기의 수출부진으로 인해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부도 위기 등 상당한 경영난에 빠지기도 하였다.

반면 냉장고와 세탁기의 경우 제품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90년도에 1억 7,700만Fr, 6,100만Fr로 각각 21.1%, 48.3%가 성장하여 수출유망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다. 전자부품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액에 48%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90년도에 82억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2.8%로 전자제품 부문별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 부품수출액에 55%를 차지하고 반도체가 '90년도에 45억 3,8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2.8%가 성장하였으며 부품수출주종상품인 음극선관도 7억 8,1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5.1%의 고성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헤드도 6,1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8.1%가 성장하여 반도체, CRT, 자기헤드가 우리나라 부품수출에 7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기헤드의 경우 홍콩, 대만 등의 저가공세로 계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0년도에 8억 7,100만Fr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8.8% 성장하였다.

'90년도에는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이 활발하였고 또한 완제품업체의 해외진출로 부품의 직수출은 다소활기를 띠었으며 또한 단제품업체와 동반해외진출도 하였으나 수출부진에 따른 Local공급이 저조하였으며 부품업체의 자금난으로 중소부품업체는 심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었다.

4. 내수동향

'90년도의 국내시장은 6조원으로 전년대비 17.1%가 성장하여 '89년도에 이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구매력이 증가하였으며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진작책과 업체의 꾸준한 기술개발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며 또한 제품의 고급화, 대형화, 전자동화 등으로 꾸준한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90년도의 부문별 내수동향은 산업용기기가 2조원, 가정용기기가 3조원, 부품이 1조원으로 가정용기기가 전체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기기는 정보화사회의 급진전과 OA기

<표-3> 주요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Fr, %)

국명	'89	'90	증감률
미국	6,542	5,669	△13.3
일본	1,961	2,231	13.8
홍콩	886	957	8.0
서독	768	1,126	46.7
영국	582	624	7.3
싱가폴	761	875	15.0
캐나다	297	367	△26.2
프랑스	326	363	11.5
네덜란드	273	416	52.0
이태리	215	193	△9.9
총계(A)	12,591	12,821	1.8
전자제품계(B)	16,562	17,214	3.9
A/B	76.0	74.5	-

기의 가격인하 등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표-4〉 10大主宗品目 輸出實績

(단위: 천₩ %)

品 目	'89	'90	증감률
반 도체	4,023,356	4,538,084	12.8
컴 퓨 터	2,041,890	1,984,244	-2.8
AUDIO	1,776,183	1,736,974	-2.2
VTR	1,238,519	1,139,935	-8.0
C-TV	1,167,915	1,348,202	15.4
電 子 랜 치	814,964	534,193	-34.5
TAPE	800,950	871,459	8.8
陰極線管	624,322	780,753	25.1
磁 器 헤 드	516,812	610,164	18.1
電 話 機	390,989	331,176	-15.3
계(A)	13,395,900	13,875,184	3.6
電子製品計(B)	16,561,926	17,214,633	3.9
比重(A/B)	80.9	80.6	

Fax 등에 호조를 보였으며 가정용기기는 제품의 고급화·대형화 및 전자동화로 C-TV가 28.1%가 증가한 4,600억원, 냉장고가 21.2%가 증가한 5천억원, 아직 보급률이 낮은 세탁기가 26.2%가 증가한 4,800억원을 나타냈다.

또한 기술개발에 의한 가격인하와 종·저가의 보급형 오디오가 계속 개발돼 오디오기기도 27.2%가 증가한 5,900억원을 나타냈다.

'90년도에는 가정용전자제품인 C-TV, VTR, 오디오 등의 내수보다 가정용전기 제품인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내수가 전자제품 내수를 앞질렸다.

이는 전자제품은 이미 보급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전자제품에서 전기제품으로 변화되었다. 즉 소득의 향상으로 전기제품의 구매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